

충장로 축제 '소망 터널'에 매단 어린이들의 '몽클 사연'

'소망 카드' 5개의 꿈 이루어진다

'불치병에 걸린 엄마가 완치됐으면 좋겠다' '이혼하려는 부모를 말려 주세요'...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 '소망 카드'를 내건 어린이 5명의 소원 <본보 10월12일자 7면>이 이루어지게 됐다.

'2007년 충장로 축제'(10월9일~14일) 기간 중 금남공원 '소망 터널'에 남몰래 꿈꾸던 소원을 남긴 어린이는 동구지역 초등학교 11곳·어린이 집 40곳 등 1만1천여 명. 동구청은 이중 5명의 애절한 사연을 선정, 소망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의식불명인 할머니 병간호 때문에 엄마와 떨어져 산다'는 황정진

"아빠 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등 동구청, 의료 지원·후원자 결연도

(9·중앙초교 3년)은.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할머니가 빨리 낫는 게 소원'이라는 글을 남긴 황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만원의 긴급구호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금으로 간병인을 쓸 수 있게 된 황군은 단 하루 만이라도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

'5·18 때 가슴을 다친 아빠가 건강했으면...'이라고 적었던 황주원

(10·서석초교 4년)양도 구청 측으로부터 지원 소식을 듣고 아빠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다.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의 병이 낫기를 기원한 정가영(10·계림초교 4년)·정윤영(10·남초교 4년)·손현진(9·서석초교 3년)양도 치료비를 받게 돼 모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휴대전화와 갖고 싶은데 엄마가 허리를 다쳐 입원해 말을 못하고 있

다'고 쓴 진년만한 강민지(9·남초교 3년)양에게는 예쁜 분홍색 자전거 한 대가 선물로 보내졌다. 이 자전거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자가 "어려운 속에서 밝게 자라는 강양이 예뻐 보낸다"며 구청 측에 전달한 것이다.

동구청은 '소망 터널'에 걸린 '소원 카드'를 꼼꼼히 살펴 본 뒤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후원자를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소망 카드'는 10년 동안 동구청에서 보관, '2017년 충장로 축제' 때 다시 '소망 터널'에 매달아 줄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법조업 中 어선 허가증까지 위조

해경, 수사 확대

우리나라 영해 및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해양수산부가 외국 선박에 발행하는 '어업활동 허가증'을 위조해 불법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위조된 서류가 중국 현지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조업 중인 모든 중국 어선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0시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흥도 중곡어선 50t급 어선 '소계어 11514호'(선장 탕복상·40)가 위조된 허가증(사진)을 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어선이 비치한 가짜 '어업활동 허가증'은 하단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란 글자와 그 밑 '大韓民國 海洋水産部' 한자가 정본보다 크기가 크며, 한글과 한자 사이의 간격도 좁다. 또 해양수산부장관 직인과 각인 글씨 등도 위조본이 더 크고 글씨체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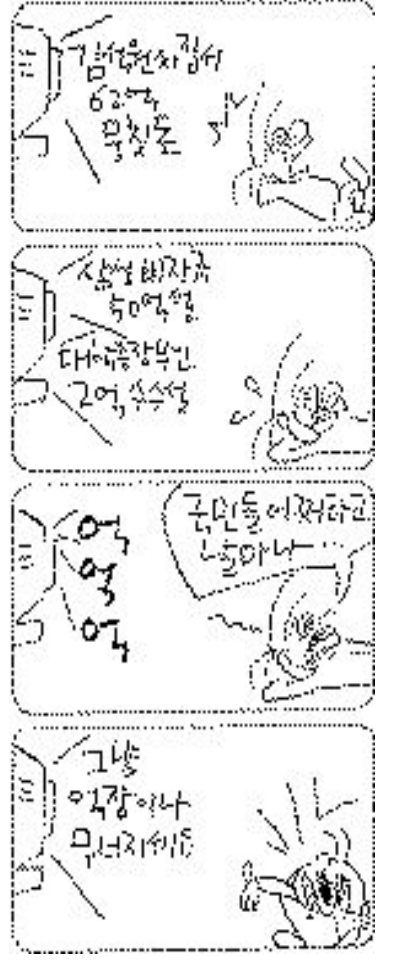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탕씨는 "선주가 브로커들에게 인민폐 15만원(한화 2천만원)에 구입, 출항시 선박 서류로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혐의로 입건 조사 후 담보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경비합정 직원을 대상으로 위조 문서 식별 요령 등을 교육하고 해양수산부에 허가증 위조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10월 말 현재 중국어선 181척을 나포, 26명을 구속하고 담보금 17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나원침 (7345)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hemicals Corporation) products, including DS Chemicals and KCC Petrochemicals.

음주단속에 유사석유 '덜미'

차내에 첨가 알코올 냄새...감지기 '뻑'

불법 유사석유를 차에 싣고 다니던 판매업자가 휘발유 냄새에 반응을 보인 음주감지기 때문에 틀어졌다.

지난 29일 밤 10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연제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92x11x10' 타우너 승합차를 몰고 가던 김모(42·광주시 광산구)씨의 차를 음주단속 중인 경찰이 세웠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차를 출발시키자 경찰은 이를 제지하며 또다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결과는 마찬가지. 음주감지기가 차 뒷좌석에 있던 유사석유 17통에서 난 냄새에 반응, 적색등이 켜지면서 경고를 이 울린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전남 북구 생동동 금호패밀리랜드 인근에서 유사석유를 한 통(18L)당 1만5천원에 구입,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통당 1만9천원에 판매하던

중이었다. 술을 마시지도 않은 김씨가 적발된 것은 유사석유에 첨가된 알코올 때문. 유사석유 성분은 솔벤트(66%)·톨루엔(10%)·알코올(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음주감지기는 구강청정제·피로회복제·식빵·점·화장품 등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거나 프로판가스(일회용 라이터)·니코틴(담배) 등 냄새가 심할 경우에도 반응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2% 이상 시 작동되는 음주감지기에는 0.5cm 크기의 백금 전극이 달려 있다. '날숨'으로 나온 알코올이 감지기 내부의 전극에 닿으면 전기신호를 발생시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씨는 석유 및 석유제품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수능부정 방지' 금속탐지기 시연회. 광주시교육청은 30일 동구 서석동 대학원에서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휴대용 금속탐지기 시연회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시학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광주시에 61개 교에서 시연회를 갖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모델서 성추행 공익요원 검거

완도경찰은 30일 모델 객실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한 공익요원 Y(21)씨를 중간계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8일 새벽 3시20분경 완도군 완도읍 모 모델에 투숙 중 바람을 쐬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가 옆 방에서 문을 연 채 잠자던 김모(여·21)씨의 옷을 벗겨 몸을 만지고 가방에서 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완도지역을 여행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GS칼텍스 공장 저장 탱크 폭발 작업 인부 2명 숨져

경찰은 중질유 분해 공정에서 생기는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가 내부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보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기계 결함 및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GS칼텍스 공장에서는 지난 22일에도 180t 크레인의 쇠줄이 끊어지며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덮쳐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10대들 돈 떨어지자 '납치' 자작극

광주 광산경찰은 30일 친구 소 개로 알게 된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협박문자를 보내 돈을 요구한 국모(19·충남 계룡시)군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국군은 지난 29일 오후 5시에 광산구 S PC방에서 '버디버디' 사이트에 접속, A(13·중2)양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당신 딸과 함께 있으니 통장에 돈 5만원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찾지 못할 것이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국군은 지난 26일 광주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돈이 떨어지자, 함께 게임을 하던 A양과 짜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국군은 돈을 찾으면 은행에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고.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 large grid of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